

조계종 원장 선거, '추첨제'로 바뀌나

법등 스님, 10일 '염화미소법' 제안... 정책모임과도 합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현행 간접선거 제도에서 '추첨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거제도 변화안으로는 직선제와 준직선제가 논의돼 왔으나, '추첨제'로 변화의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교계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 방안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법등 스님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안인 '염화미소법'은 중정 스님이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추첨해 선택하는 '추첨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가능하며, 후보자는 엄정한 검증단계를 거쳐게 된다. 종단 후보부와 사회기구에 신원 조사는 물론이고 1년간의 사유 재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통해 계·정·혜 후보 3인을 선출하면 1주일 후 원로의원, 본사 주지, 총회의원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중정 스님이 3인 중 1인을 염화미소(추첨)해 행정부 수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법등 스님은 "자극의 선거제도는 금권, 정책모임 이익화, 직책 거래 등의 폐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도와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염화미소 선거법"은 종단의 오랜

전통인 대중공의 방식과 1994년 종단 개혁의 산물인 민주화 방식의 장점만을 선택한 선거제도이고, 작금의 종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정 스님이 염화미소로 선정한 신임 총무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누구의 물적 도움도 받지 않는 까닭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종단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중앙총회 내 정책모임도 이해관계에 따

간선제와 추첨제 혼합 방식

계·정·혜 후보 3인 선출하고

중정 스님 1인 비공개 추첨

"기존 선거제 폐단 줄일 것"

9월 중앙총회서 다뤄질 듯

라 반목하고 갈등하는 폐해를 없애고 정책 연구와 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는 조계종 정책모임인 불교광장(회장 지홍)과 삼화도량(회장 영담)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삼화도량은 8월 9일 법등 스님과 회동 등을 가졌고, '염화미소법'을 선거제도 변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광장은 기자회견 직전 회장

단과 임원진이 모여 법등 스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 지홍 스님은 "삼화도량은 직선제 방안을, 불교광장은 준직선제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법등 스님이 좋은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은 "그간 선거를 마치면 항상 대표성 문제부터 금권, 파벌까지 다양한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이번 제안은 논의해 중앙총회에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화미소법' 제정 추진은 종단에서 구성될 '염화미소선거제도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협의회 구성은 중앙총회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등 스님은 "선거인단 구성과 최종 후보자 인원, 후보자 검증 방법 등 세부적 방안은 '염화미소선거제도협의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가 구체적 방안을 만들고 나면 총회에서 종헌과 선거법 제정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총회의장 성문 스님은 질의응답을 통해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오는 9월 중앙총회에서 총회의원과 외부 활동인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군산 동국사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어루만지고 있다. 사실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처음이다.

'평화의 소녀상', 사찰 첫 건립

광복 70주년 맞아 군산 동국사 경내 세워져
일본 동지회 1천만원 쾌척... 한일교류 '귀감'

광복70주년을 맞아 사찰 경내에는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군산 동국사(주지 종결)에 세워졌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공동위원장 이승수, 김부영)는 8월 12일 군산 동국사에서 '군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경내에 세워진 군산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 36년간 강제 수탈의 현장인 군산시민의 성금 5천여만의 예산으로 건립됐다.

전국에서 11번째, 전북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스님등 동지회(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가 2012년 일본의 과오를 참회하며 만든 참사

문비 바로 앞에 세워졌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세) 할머니가 참석해 피해를 증언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은 위안소가 없었다는 등 명백한 사실을 거짓말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런 태도 때문에 더욱 화가 나고 명예회복과 진실할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사 주지 종결 스님은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에 서 유래가 없는 참담했던 인권침해 사례이다"며 "소녀상 건립을 계기로 불교계의 인권운동은 물론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과 자비정신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합·상생의 새 시대 열자"

KCRP, 광복 70주년 대국민 메시지 발표

7대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대표 회장 자승, 이하 KCRP)가 광복 70주년 8.15를 맞아 화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촉구했다.

KCRP는 지난 1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화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종교인들은 올해 광복절이 다른 해보다 더욱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며 "또한 새 시대를 열어나섰던 선인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KCRP는 밝은 미래사회를 위해 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들은 "남북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정전체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대결구도 속에서 평화는 물론 민족의 도약을 전망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의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고, 남북 북은 자신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계층 간 갈등의 원인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화해와 화합의 정신적 가치를 내포하고 대립적 사고, 경제 중심적 사고, 무한경쟁 풍조가 그 중심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충남 서천서 백제사찰 유구 발견

도자기 생산시설 자리해, 사원경제 연구 모델

충남 서천은 백제시대 수운의 중심이었다. 이 지역에서 도자기를 생산한 백제사찰유적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은 8월 11일 2014년 3월부터 발굴조사 중인 충남 서천 유적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도기 생산유적의 유구(遺構)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특히 도기 생산유적이 백제사찰의 일부였음을 추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적지 외곽에서는 백제 토기와 기와 가마, 주조유구(鑄造遺構), 통일신라~조선 시대에 이르는 기와·도기·자기·술가마 등의 유구와 함께 연화문, 수막새 등 사찰 유구가 발견됐다. 또 유적 중심부에는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로 연대가 쓰인 '운감사'와 '개복사' 등 명문기와가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이를 토대로 "출토유물 등으로 미뤄 사원(寺院) 등의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중공의기구' 21인 내외 구성한다

조계종, 의현 스님 재심 논란 해소 세부계획 26일 발표

의현 스님 재심논란 해소와 과거사 정리를 위한 '대중공의기구'의 윤곽이 나왔다.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이하 추진위)는 8월 13일 6차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29일 5차 대중공사에서 결의된 '대중공의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는 "대중공의기구" 규모를 출·재가,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망라해 15~21인 내외의 인사로 구

성키로 결의했다. 대중공의기구 목표와 운영 등의 세부적인 계획은 박재현 화정문화아카데미 사무국장을 탐장으로 한 준비팀과 대중공사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5차 대중공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재심호계위원 사퇴 권고'에 대해서는 호계원에 사부대중의 뜻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이뤄진 대중공사 후속 조치의 경과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미래

세대위원회는 중앙총무기관 조직개편과 연계해 위원회의 성격과 주무부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사찰 재정 투명화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제6차 100인 대중공사는 오는 26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광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를 것인가'를 의제로 진행된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대중공의기구' 구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법어가 담긴

1000 120 1 20년

음 대

A set		
B set		
C set		

2 1 9000 3 (27000) 구

불 02)2004-821 053-01-2902 (주) 대불신